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강호정	학번	201811016
이메일	hjkang68@hanmail.net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국가) 미국
기 간	2018. 9 ~ 2019. 8 [귀국일:2019년 8월 1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9월 일

신 청 인 : 강호정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1) 기후

San Diego는 1년 내내 18 ~ 27도 사이의 온도를 나타내는 지중해성 기후로, 햇볕의 유무에 따라 체감온도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진다. 겨울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로 알려져 있으나 올 겨울에는 비가 자주 내린 편이었다. 하지만 주로 밤에 오고 아침에는 그치는 양상을 보이며 샤워기의 가는 물줄기처럼 흩뿌리는 경우가 많아서 습하다는 느낌이나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내에서도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이유도 날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UCSD 근처 라호야 지역은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서늘한 편으로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하지는 않았고, 겨울에는 필요시 히터나 장판을 사용했었다.

2) 지리적 위치

샌디에고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로, 해안도로를 따라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서부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므로, UCSD 근처에서 출발할 경우 멕시코 국경과도 차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승용차로 두 시간 정도 내륙 쪽으로 이동하면 사막지역 체험도 가능하다. 미국 전역으로 가는 국내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제공항도 다운타운 지역에 위치해 있어 미국내 지역 및 원하는 곳을 가는데 불편함이 없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할리우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는 LA는 승용차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비행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좀더 규모가 큰 LA공항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특별한 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도 다수 있어서 미국의 고유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용이하다.

3) 생활여건

한인마트가 잘 조성되어 있고, 각 아시안 마켓들도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생필품과 식재료 구입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가격은 품목에 따라 한국과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대략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외식의 경우에는 팁을 포함해서 한국과 비교할 때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다. 또한 한인이 운영하는 다양한 업소들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 등의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 주는 곳도 있었다. 백인과 라티노 등이 주류를 이루며 흑인들보다 동양인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이유때문인지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외국인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인내심도 높은 편으로 보였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미국 전역에서 홈리스들이 네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다운타운 지역의 경우 노숙자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UCSD가 위치해 있는 라호야(La Jolla) 지역은 치안이 보장되고, 대부분의 쇼핑과 외식 등이 지역 안에서 해결이 되는 편이다. 샌디에고 안에서 UCSD에 대한 접근성은 La Jolla 지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UCSD 학생들은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며, 북쪽의 델마나 카멜밸리 등은 렌트비가 더 비싼편이나 학군 때문에 자녀를 동반한 분들의 경우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렌트비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런지 시즌에 따라 차이가 나며, 같은 아파트라도 계약기간, 소음이나 방향 및 유틸리티 구성등에 의해 달라진다. 라호야 지역의 경우 대략 평균적으로 1 bed 1 bath가 월 \$1,900-2,200정도이다. 보통 Apartments.com Zillow 등에서 원하는 지역에 집을 검색해보고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서 방문해본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내 경우는 Craig list를 통하여 개인 소유의 콘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많은 우려와는 달리 내가 제시한 가격과 기간을 집 주인이 받아들였고, 그 후 수리 등 모든 제반 사항은 property manager에게 통보하여 처리하였으며, 보증금 반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귀국하였다. 여담을 한가지 말하자면 집 수리의 경우 항상 예약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 3~4일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있다.

1.4 운전면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캘리포니아 DMV(차량등록 및 운전면허 등 담당기관)의 행정시스템이지만 내 경우는 운 좋게도 한번에 면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DMV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필기시험은 예약하고 갔었고, 필기의 경우 한국어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시험지는 몇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불행히도 라디오 코리아 등에서 구할 수 있는 기출문제에서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다. 하지만 교통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을 구할 수 있고 커트라인 6개까지 여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필기시험 통과 후 다시 실기시험을 예약했는데 대기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서 걱정을 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은 매일 아침마다 접속해 보면 기존의 예약을 취소한 사람들로 인한 자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시험보다 앞당겨서 예약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실기시험은 차량의 전반적인 체크와 수신호 확인 그리고 도로주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 전에 유튜브 등 인터넷 검색을 하여 내용을 미리 숙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고의 경우 학교 근처 클레어몬트 지역보다 포웨이 쪽 DMV가 좀 더 친절하고 관대하다는 다수 학생들의 평이 있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발급은 주도인 샌크라멘토 DMV에서 관장하며 이 발급기간이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1개월이상으로 오래 걸린다. 이 운전면허가 실제로 발급된 상태가 되어야만 자동차 보험을 좀 더 할인 받을 수가 있다. 같이 수강했던 학생들 중에 2주내 받았다는 분은 AAA 회원에 가입했던 분이고, 내 경우 1개월 기다린 후 오지 않아서 DMV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민원 비슷하게 관련 사항을 올렸더니, 담당자가 메일이 와서 해결되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SD 비학위 과정인 GLI 과정은 대학원 수준의 강의 수강 및 어학과정(ESL)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KDI 과정 학생 외에도 한국인 수강생들이 많아서 학교생활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또한 GLI 소속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학업 및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있고, 출결관리 및 수업관련 안내사항을 메일로 알려주고 있었다. 내 경우 학기 초 메일리스트에 빠져 있었는데, 혹시나 학기 초 다른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담이 부담스러운 경우 메일로 질문사항을 보내면 매우 신속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편리 하였다. GLI 과정은 학위과정과 비교하면

수업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매 학기 당 12 학점을 수강하여야 하는데, 어학과정 (2학점) 2 과목과 전문과정(4학점) 2 과목을 들어야 한다. 어학과정은 요구하는 어학점수를 제출하거나 한 두 학기 수강 후 담당 인스트럭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에 전문과정 한 과목을 들어야 한다. 전문 과목의 경우 물론 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KDI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간 경우는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LI 과정에는 professional tour가 2번 있는데 한번은 3박 4일의 샌프란시스코이고 두 번째는 4박 5일의 워싱턴이다. 전반적인 소감은 이러한 여행을 통해 한미관계 등 시야가 넓어졌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도 좀더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투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IT 관련 기업과 샌프란시스코 시청,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 등 주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고, 워싱턴은 미 국무부, 의회와 국제평화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를 방문하는 것이다. 각 기관 방문 시 방문기관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사전에 조사해 간 질문내용을 발표하는 등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보통 기관당 한 시간 전후로 소요 되었는데 보통 하루에 2~3개 정도 기관을 방문하는 바쁜 일정이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백악관 내부방문일정이 없었는데, 먼저 진행되었던 샌프란시스코 투어시 동행했던 담당 직원에게 요청 비슷한 질문을 하니 지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과 또 현재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내 의견으로는 백악관 일정과 공식적으로 박물관 하나 정도의 일정이 추가되고 다수의 싱크탱크 비중이 다소 줄여지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사전조사 및 질의 응답이 가능하게 되는 금상첨화의 일정이 될 것 같다.

3.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내 경우 사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갖게 될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소 무리를 해서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자연환경에서 강의와 여러 체험을 통하여 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분야에 대하여 시야를 넓히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실생활에 접목되는 지에 대한 이해도 커지고, 미국 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건강보험 등 공공보건 정책이 전 국민 대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 등을 피상적이지만 전보다는 많이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시스템의 장, 단점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생각보다 영어실력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다는 점인데 후배 분들은 가능한 미리 준비해 가면 현지 적응에 있어서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될 것 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